

비영어권 음악에 보수적? 우리 영어 가사야!

11월25일 내년 그래미 후보 발표
BTS·블랙핑크 선정 여부에 촉각
해의 음악전문지도 '케이팝 인정'



그들 방탄소년단에 남은 무대는 오로지 그래미 어워즈다. 세계의 시선이 11월25일 방탄소년단의 그래미 어워즈 수상 후보자 지명 여부에 쏠리고 있다.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세계의 승리", "아카데미상 92년사에 남을 기록", "아카데미상의 새 시대를 열었다"...

올해 2월10일(이하 한국시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관왕을 차지하자 AP통신, CNN, 가디언 등 해외 유력 언론들은 탄성을 내질렀다. 비영어권·아시아 영화의 수상이 할리우드 백인 중심의 보수적 영화상이라는 '오명'을 씻어낸 것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전 세계 영화산업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차지하는 할리우드와 그 대표적 영화상인 아카데미상처럼 팝 음악계에는 그래미 어워즈가 있다. 역시 미국 및 영어권 중심의 보수적인 상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최근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이를 정조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래미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는 시선이 나온다.

● 그래미, 보수적·배타적 시선에 변화?

그래미 어워즈는 빌보드 및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함께 3대 대중 음악상으로 불린다. 그러나 권위 측면에서는 압도적이다. 최영균 대중음악평론가는 29일 그래미가 "엄청난 앨범 및 음원 판매로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다"며 전제하고 "많은 대중음악 현업 종사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지지를 받은 만한 작품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보 및 수상자 선정에 일정한 보수적 경향성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미 후보는 주관기관인 미국 레코딩산업협회(ARIS)의 심사위원 투표와 후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선정된다. 하지만 비영어권 가수나 힙합·댄스음악 등에 배타적이며 보수적이라는 시선을 받아왔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및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달리 유독 그래미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음악전문지 '롤링 스톤'은 "그래미가 케이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음악산업의 흐름과 너무도 다르다"고 비판했다. 팝스타 할시도 "방탄소년단은 후보 자격이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 방탄소년단·블랙핑크, 실제 후보 될까

이런 시선 속에서 NARAS는 11월25일 내년도 그래미 어워즈 후보를 발표한다. 케이팝 팬들의 기대는 방탄소년단의

후보 지명 여부로 향한다. 여기에 블랙핑크도 성과를 얻을지 주목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다이내마이트'(Dynamite)로, 블랙핑크는 정규 1집 '디 앨범'(The Album)과 수록곡 '아이스크림'으로 각각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영어 노랫말로 미국시장을 겨냥했고, 이는 음원 스트리밍·다운로드 횟수 등과 함께 현지 라디오 방송 횟수를 합산하는 순위 산정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라디오도 비영어권 노래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영어 노랫말이 유효했던 셈이다.

이에 따라 그래미를 노리다는 시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기대감도 높다. 방탄소년단이 올해 1월 시상식에서 케이팝 그룹 최초로 공연을 펼친 점도 그래미의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최 평론가는 "그래미 수상은 대중적인 인기에 더해 음악성도 최고 권위의 공인을 받게 되는 것이다"면서 "케이팝 스타들이 SNS 등 뉴미디어의 급성장 덕에 정상에 올랐다는 일부 평가절하의 시선을 일축하고 폭넓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3

조인성·차태현 등 희귀질환 아동 후원 바자회

배우 조인성, 차태현, 성유리, 유연석, 이광수 등이 희귀질환을 앓는 아동들의 치료비를 후원하기 위해 바자회를 연다. 11월7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만나 바자회'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모임 '만나'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연예인들은 행사를 위해 개인 소장품을 내놓는다. 주최 측은 이외에도 의류, 학용품, 생활용품, 액세서리, 화장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한 수익금과 후원금을 모아 소아 희귀질환 치료비 후원금으로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김지선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개그우먼 김지선과 그의 남편 김현민 씨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사랑의열매) 객역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299·300호 회원이 됐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29일 "김씨 부부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각 1억 원 씩 총 2억원을 기부해 서울지역의 300번째 회원이자 33번째 부부 기부자가 됐다"고 밝혔다. 김지선은 "대중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어 가입을 결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외에도 배우 이순재, 문근영, 방송민 전현무 등이 서울지역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돼 있다.

미스터트롯 부산 콘서트 관객객 600명씩 축소

'미스터트롯 부산 콘서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객객을 줄인다. 부산 해운대구는 29일 주최 측에 해당 관람 인원을 축소하라는 통보했다. 행사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30일부터 사흘간 총 5회에 걸쳐 열린다. 각 회당 5000명씩 관람객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구는 각 회당 관람객을 600명 줄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에서는 참석 인원 1명당 최소 4㎡의 공간을 확보하라'고 제한하고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아카데미상 후보로 점쳐지는 '미나리'...개봉은 언제?

美 선댄스영화제 수상 작품성 인정
올해 7월 이상 상영해야 후보 자격

해외 유력 언론들이 윤여정, 한예리, 한국계 미국배우 스티븐 연 등이 주연한 영화 '미나리'의 내년도 아카데미상 후보 및 수상 가능성을 점치면서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개봉 시기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나리'는 한국계로 할리우드에서 활동 중인 정이삭(리 아이작 정) 감독인 연출한 작품.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한인가족의 이야기를 그렸다. 올해 미국 선댄스영화제에서 수상

하는 등 이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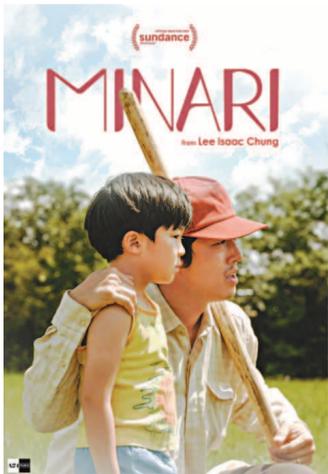
미국 배리어터와 할리우드리포터, 인디와이어 등 주요 영화전문지들과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 등은 이에 기대 '미나리'가 내년도 아카데미상의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를 것이라고 최근 예측했다. 작품상과 감독상은 물론 배우들의 후보 지명과 수상 가능성을 내다보는 시선까지 나온다.

하지만 '미나리'는 아직 현지 개봉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방대하고 정확한 영화 관련 정보를 얻어온 전문사이트 IMDB닷컴에도 개봉 시기는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다. 이는 현행 규정상 후보 출품 자격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와 직결된다.

매년 2월 아카데미 시상식을 열은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전년도 12월31일까지 LA 카운티에서 7일 이상 극장에서 상영한 영화에 후보 출품 자격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극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자 규정을 완화해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OTT) 작품에도 문을 열기로 했다. 일정을 연기해 4월25일 개최하며 후보자(자)는 3월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현지 극장 개봉 및 상영 시한도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나리'의 향후 개봉 및 공개 일정이 주목되는 이유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영화 '미나리' 포스터

교육

에듀윌

공인중개사 '2021 합격패스' 오픈

공인중개사 전문 교수진이 만든 커리큘럼이 강점

에듀윌 공인중개사는 정년이 없는 직업으로 많은 이들이 노후 대비로 준비하는 자격증이다. 꼭 부동산을 개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

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관련 부서 취직에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전망이 밝아 꾸준히 시험 응시자 수가 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학습 방법으로 시험을 준비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공인중개사 시험 1년 합격 완성을 위한 '2021 합격패스'를 선보인다. 에듀윌 공인중개사 2021 합격패스는 공인중개사 전문 교수진과 연구소가 함께 만든 합격 커리큘럼이 강점이다. 시험 준비에 필요한 기초개념 확립부터 마무리 특강으로 학습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강의한다.

이 밖에도 실제 시험과 유사한 문제들로 구성된 에듀윌 공인중개사 전국 실전 모의고사

가 있다. 시험 응시 후엔, 1:1로 맞춤 성적 분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에듀윌 공인중개사는 수험생의 학습, 성적, 생활까지 관리하는 '독한 에듀윌' 서비스를 선보인다. 독한 에듀윌 서비스는 현장 강의와 같은 집중 환경 조성, 경쟁심 자극, 학습 패턴 형성 등 수험생들을 밀착 지원한다.

에듀윌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3번의 '합격자 수 최고기록'을 공식 인정받은 바 있는 에듀윌 공인중개사인 만



큼 그 명성을 쫓아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상의 콘텐츠를 선보이겠다"라고 전했다.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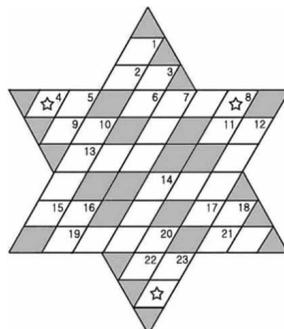
■ 스토쿠문제

	4	2			1	5	
3			7		5		4
5				2			3
	3		8		6		2
		7				3	
	1		4		9		7
9				6			5
8			5		1		7
	5	6				8	9

■ 스토쿠정답

2	6	8	7	1	9	5	4
5	1	9	8	2	3	7	6
9	2	5	6	8	7	1	3
8	7	3	2	9	1	4	6
1	2	6	9	4	8	5	7
6	9	4	2	7	5	1	8
7	8	2	5	1	3	6	9
6	5	1	9	8	2	7	4

■ 낱말문제



■ 가로열쇠

02. 우연히 서로 만남. 04.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의미. 06. 하늘과 땅 사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 09. 꼬기

리의 입 밖으로 길게 자란 두 개의 엄니. 11. 잘못을 벌을 주지 않고 봐줌. 13. 학령이 안 된 어린이의 심신 발달을 위한 교육 시설. 14. 상수도에 보낼 물을 모아 두고 처리하는 곳. 15. 사람의 얼굴 모양. 17. 고향을 그리워하며 생각함. 19.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윗대의 열사. 21.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22. 여러 갈래의 길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마당.

■ 세로열쇠

01. 낚시를 하러 나섬. 03. 비가 오는 날씨. 05. 배우나 무용수들이 입을 옷. 07. 의지할 데 없는 노인일 수 있어 돌보는 사회 보호 시설. 08.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서 씬. 10. 남

에게 아첨하여 구차스럽게 굽. 12. 이뤄질 듯한 희망. 14. 물과 하늘이 맞닿은 경계. 16. 어떤 사실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18. 융숭하게 대접함. 20. 너무 기뻐 미친 듯이 날뛸. 23. 여름철 계속해서 서리가 내리는 날씨.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풀 다음 ★칸을 틀 이어놓으면 여러 분이 잘 아시는 스타 이름이 됩니다.

